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옥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 및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윤미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 및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이 옥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윤 미

인 준 서

윤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생후 초기에 부모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된 경험이 있는 아동이 지각하는 애착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 양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 429명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었다. 설문지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애착 설문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스스로 평가하는 양육효능감 설문지, 타인양육의 경험과 특성에 대한 질문지를 포함했다.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아동의 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주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아마도 회상을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육 상황을 알기 힘들고, 이미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타인양육 경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현재 아동의 애착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 모애착과 부애착의 문항별로 알아본 애착의 특성에서 모유용성에 속하는 ‘나는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타인양육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타인양육을 경험했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어머니와의 시간을 덜 보낸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애착과 부모의 양육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정적 상관의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효능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동의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애착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차이검증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의존성과 모유용성, 부의존성과 부유용성 모두 전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선주,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양육의 경험 유무가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애착의 전생애적 관점에서 보면 초기의 양육경험은 전생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양육에 대한 연구가 영유아기 뿐 아니라 아동기나 성인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된 아동들의 애착이 아동기에 어떠했는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타인양육이 어머니와 자녀 간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지적 신념이라 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타인양육의 경험에 대한 설문으로 상황을 회고하여 응답하는 질문이었기에 객관적인 질문의 한계로 인해서 자세히 예측하기 힘들었다. 또한 부모님들 역시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타인양육의 특성에 대한 분류가 유의미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표집의 어려움으로 타인양육 경험이 있는 사례의 수가 적었던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가설 및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1. 타인양육과 애착 4
 - 1) 타인양육의 정의 4
 - 2) 애착의 개념 4
 - 3) 타인양육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5
2. 양육효능감과 애착 7
 - 1) 양육효능감의 정의 7
 - 2)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9
 - 3) 양육효능감과 애착간의 관계 11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12
2. 연구도구 14
 - 1) 타인양육 설문지 14
 - 2) 아동의 애착척도 14
 - 3) 양육효능감 15
3. 자료분석 17

IV. 결과

1.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과 아동의 애착 18

1)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이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18
2) 타인양육 특성과 아동의 애착	19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	21
1) 부모 양육효능감의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의 아동애착 차이	21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과의 관계	22
3)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효능감의 특성	24
3.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그밖의 요인들	27
1)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
2) 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V. 논의	30
1. 결과에 대한 논의	30
1)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과 아동의 애착	30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	31
3)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용인들	34
2. 의의 및 제한점	35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3
표 2 아동의 애착 척도	14
표 3 양육효능감 척도	16
표 4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아동의 애착 차이	18
표 5 타인양육의 특성	19
표 6 부모의 양육효능감 상위하위그룹에 따른 아동의 애착 차이	21
표 7 아동의 애착과 부모의 양육효능감간의 관계	22
표 8 모양육효능감과 모애착의 하위요인별 상관	23
표 9 부양육효능감과 부애착의 하위요인별 상관	23
표 10 아동의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육효능감의 특성	25
표 11 아동의 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육효능감의 특성	26
표 12 아동의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표 13 아동의 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I.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양육(Parenting)이란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최근 기혼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취업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수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육형태의 변화는 무엇보다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그 이후 발달 및 부모-자녀 관계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이러한 우려는 무엇보다 부모에게 있어 더욱 큰 부담과 걱정을 안겨줄 수 있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연구자들이 애착에 대한 타인양육의 영향은 여러 관련 변인들-타인양육의 특성과 양과 질, 처음 타인 양육을 시작한 시기, 영유아 자신의 특성(성별이나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특성과 가정의 특성에 연결된 여러 변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재된다고 말한다(Belsky, 1958;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 양연숙, 2000; 양연숙 & 조복희, 2001).

그러나 영유아기의 타인양육 경험이 이후 아동기의 애착 안정성, 부모-자녀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의 타인양육 경험이 아동기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어 애착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한편, 애착에 있어서 어머니에 관련된 변인으로 양육행동과 모-자간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애착 안정성 발달에 기여한다고 많은 애착관련 연구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Bowlby, 1982; Belsky, 1988; 양연숙, 2000; 전우경, 2002).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 중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이러한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애착이나 타인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연구 중에서는 문혁중(1999) 연구가 취업모의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 및 양육 태도와 관련이 있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자 한다.

2. 가설 및 연구문제

1)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과 아동의 애착

연구문제 1. 6세 이전의 타인양육 경험의 유무가 아동의 애착에 차이를 주는가?

연구문제 2. 타인양육의 특성(시작시기, 기간, 빈도, 안정성, 타인양육자 등)은 아동의 애착에 차이를 주는가?

가설 : 타인양육의 경험이 아동의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

연구문제 3.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와 낮은 부모 간에 아동의 애착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사이의 상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부모의 양육효능감 중 어느 요인이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끼치는가?

가설 :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타인양육과 애착

1) 타인양육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김선주(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가 만 6세 이전일 때의 주양육자는 아동이 깨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8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아준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아동이 만 6세 이전에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니었을 경우가 있었다면 타인양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2) 애착의 개념

애착이란 한 개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인 유대관계, 즉 친숙한 개인과의 근접성을 구하고 접촉하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을 느낀다는 것은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으로 여러 상황과 시간에 걸쳐 지속된다. Bowlby(1969)에 의하면 출생 직후부터 애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영속성 등의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고 애착 대상과 많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애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양연숙, 2000, 재인용). 따라서 애착관계의 질은 유아와 양육자 사이의 상

호작용에서 나오는 것으로 유아의 욕구에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적인 양육자는 유아가 안정애착을 형성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영아는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형성된 초기의 관계 유형을 내면화하고 일반화한다. 애착 대상에 대한 신뢰감은 영아가 의지의 통제를 받기 이전인 감각운동기에 형성된 것이어서 변화되기 어렵다(Ainsworth et al., 1978).

Bowlby(1979)는 유아의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유지된다는 전생애적인 구조(lifespan construct)로 애착을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애착의 연속성은 유아기에서 학령 전 아동기까지 종단적 연구(Main & Cassidy, 1985)뿐만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 안정성 분류법이 학령 전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의 분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에서 확인되었다(Ainsworth, 1979, 김선주, 2001, 재인용).

3) 타인양육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기혼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취업의 증가로 인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해 양육되는 영유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타인양육 경험이 영아의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칠 ‘위험 요소’에 관한 우려가 높다.

Belsky(1988)는 타인양육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연구에서, “생후 일 년 내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타인에게 양육되는 것은 회피-불안정한 애착의 발달, 이후의 공격성과 비동조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소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종일 탁아 양육을 받은 유아의 후의 행동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유아의

의심 또는 기본적 불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불신감이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와는 다른 주장들(Hock, 1980; Chase-Lansdale & Owen, 1987)도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영유아의 타인양육 경험이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허운진, 2002, 재인용).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부모가 아동의 애착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와 아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모 외의 맥락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의 초기 어머니와 분리되어 타인양육 되는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분리 및 타인양육의 특성뿐만 아니라 영아 자신의 특성, 어머니 및 가정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Belsky, 1988;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 양연숙, 2000; 양연숙 & 조복희, 2001).

우리나라 연구를 살펴보면, 양연숙(2000)은 타인양육 영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분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아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및 해석 그리고 반응이 민감하고 적절할수록 영아가 어머니에게 안정 애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이지 못할 때 불안회피 애착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분리 및 타인양육자 특성 역시 애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그와 함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과 상호작용하여 애착에 영향을 주었다.

6세 이전에 부모와의 분리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로 한 김선주(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분리경험 시기, 분리경험의 유무가 아동의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즉, 분리경험의 시기를 0~6개월, 7~12개월, 13~36개월, 37개월 이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모애착과 모유용성(예: 만일 도움이 필요할 때, 애착인물이 반응적이고 의사소통에 개방적일 거라는 믿음) 수준은 13~36개월에서 가장 낮고 37개월 이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을 스트레스시의 애착인물의 유용성과 아동의 애착인물에 대한 의존성(예: 아동이 애착인물과 가까이 있고자 하고 의존하는 정도)의 두 가지 차위척도로 나누어 고려하였는데, 분리경험이 있을 때 유의미하게 부의존성과 모의존성이 낮았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허윤진(2002)은 아동의 애착특성이 분리경험의 유무, 어머니의 학력, 처음 분리된 시기,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양육자 변경 유무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2. 양육효능감과 애착

1) 양육효능감의 정의

양육효능감을 정의하면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형성, 2002).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각된 능력이

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양육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첫째,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영아의 고통감을 파악하고 경감시켜주는 방법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고, 3세 아동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제약과 강화를 주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 둘째, 아동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하고, 셋째, 아동이 주위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해서 잘 기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Bandura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아동 양육행동에 관련된 특별한 지식수준과 역할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감의 정도와 관계된다(Bandura, 1989). 양육효능감은 환경적 변인(ecological variable)과 양육유능성(parenting competence) 사이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적 조건이나 사건들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양육유능성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transactional variable)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가진 어머니는 양육의 성공을 기대하게 되므로 실제적으로도 좋은 양육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가진 부모는 양육에 대해 자신이 없고 갈등적이기 쉬워, 좌절을 경험하기 쉽고 실제적인 양육결과도 빈곤하기 쉽다. 또 이 결과 양육효능감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John & Prinz, 2005).

2) 양육효능감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Coleman & Karrake, 1997; Dumka, et al, 1996). 그리고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어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이며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체벌적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고, 부모 역할에 수동적 대처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최형성, 2001, 재인용).

또한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과 자녀에게 비체벌적이고 온정적이며 자녀의 행동을 수용하는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반면에 거부적이고 체재적 양육행동이나,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신숙재, 정문자, 1998; 서소정, 2004; 최형성, 2005). 또한 이진숙과 한지현(2004)는 자녀의 특별한 발달적인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더 관여하고 자극을 주며 부모양육 효능감과 질 높은 양육 및 지지환경관의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양육기능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에 대해 매개변인(mediator)으로 기능할 수 있다. Cutrona와 Troutman(1986)은 양육효능감과 부모의 우울증세가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으며 부정적인 자기귀인이나 무가치감과 같은 인지과정이 우울감에 영향을 줄 때 양육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임신 기간 동안과 출산 후 3개월의 영아시기에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고 이를 양육효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또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직접적으로 산모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산후 우울증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보고했다. Ozer(1995)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책임감과 심리적 안정과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했다. Hastings와 Brown(2002)은 양육효능감이 자폐아동의 문제행동이 그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보고했다.

요약하자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관련 영역에 해당하는 양육 행동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울을 격려하는 행동을 하는 반면에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에 있어 인지와 행동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안지영, 2000).

3) 양육효능감과 애착간의 관계

양육효능감과 애착의 상관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애착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연관이 있는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왔다.(Ainsworth, 1978; 송지연, 1987; 노명희, 1995; 박응임, 1998). Ainsworth(1979)는 영아가 특정 양육자에게 발달시키는 애착의 유형은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양육의 종류에 달려있다는 양육 가설(caregiving hypothesis)을 개념화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만일 양육자가 긍정적 태도를 갖고 영아의 욕구에 대해 민감하고 풍부한 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면, 영아는 안전하게 애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의 인지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상관을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7개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총 700명과 그들의 부모님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어 아동용설문지는 총 557부, 어머니용설문지는 총 493부, 아버지용설문지는 총 480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타인양육의 경험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는 어머니용설문지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총 97사례였는데, 부실한 자료를 제거하고 73사례의 타인양육 경험이 있는 집단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아동용, 어머니용, 아버지용을 한 세트로 할 때, 어느 한 설문지라도 빠지거나 짝을 알 수 없어 세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와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29사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범위		변인	특성	빈도(%)	
아동의 특성	9~13세	성별	남	189(44.1)	
			여	240(55.9)	
		학년	5학년	168(39.2)	
			6학년	261(60.8)	
		출생순위	외동	38(8.9)	
첫째	182(42.4)				
둘째이하	209(48.7)				
부모의 특성	부: 30~57세	교육수준	고졸이하	125(29.2)	188(43.9)
			대졸(전문대포함)	260(60.7)	229(53.5)
			대학원이상	43(10.0)	11(2.6)
	모: 30~51세	어머니의 취업	비취업	224(53.6)	
			취업	194(46.4)	
가정의 한달 평균수입			200만원 미만	34(8.2)	
			200~399만원	146(34.9)	
			400~499만원	111(26.6)	
			500만원 이상	127(30.4)	

2. 연구 도구

1) 타인양육 설문지(어머니용에 포함)

아동의 성별, 연령, 타인양육 기간, 타인양육 시기, 타인양육자의 유형, 타인양육 장소, 타인양육자의 안정성(변경횟수)과 규칙성/불규칙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 권정혜와 김선주(2001)가 제작한 도구 사용하였다.

2) 아동의 애착척도(아동용)

본 연구에서는 Kerns Security Scale(KSS)를 허윤진(2002)이 전문가의 안전타당도를 거쳐 수정보완·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으로 4점 척도이다. 점수가 4점에 가까울수록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모의존성 .81, 모유용성 .81, 부의존성 .86, 부유용성 .8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2 아동의 애착 척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어머니	아버지
의존성	1, 2, 3, 4, 5, 6, 7, 8, 9	9	.81	.86
유용성	10, 11, 12, 13, 14, 15	6	.81	.8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와의 안정애정척도에 대한 각 하위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① 의존성(dependence)척도

의존성척도는 아동이 스트레스 시에 애착인물에게 의존하는 경향과 애착인물과 의사소통을 쉽고 즐겁게 하는지에 대한 아동의 보고로 아동이 부모의 도움을 찾고 가치있게 여기는 정도를 반영한다.

② 유용성(availability)척도

유용성척도는 아동이 애착인물에 대해 반응적이고 유용하다고 지각하는지를 반영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도움에 의존성이 더 높고 양육인물에 대한 유용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3) 양육효능감(부모용)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된 도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3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등 5개 하위 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모양육효능감에 관해서는 ‘전반적인양육효능감’ .9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5, ‘의사소통능력’ .86, ‘학습지도능력’ .84, ‘훈육능력’ .74, 부양육효능감은 각각 .91, .85, .89, .87, .8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3 양육효능감 척도

하위요인	내용 /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어머니	아버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 지식, 행동 등을 포함 (1, 4, 5, 9, 10, 14, 19, 24, 29, 34, 37)	11	.90	.91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자녀의 심신건강과 관련된 문항들 포함 (2, 6, 11, 15, 20, 25, 30)	7	.75	.85
의사소통 능력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 (3, 7, 12, 16, 21, 23, 26, 31, 35)	9	.86	.89
학습지도 능력	자녀의 지적 학습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 (8, 17, 22, 27, 32, 36)	6	.84	.87
훈육 능력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과 관련 (13, 18, 28, 33)	4	.74	.82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가설 및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1> 타인양육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의 유무 및 타인양육 특성에 따른 아동의 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아동의 애착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Pearson's 적률 상관관계 계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육효능감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 아동의 나이, 아동의 출생순위, 가족수, 가족형태(2세대, 3세대이상), 부모연령, 부모학력, 모의 직업유무, 가정의 한달수입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과 아동의 애착

1)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이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아동의 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표 4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아동의 애착 차이

	타인양육 경험	평균(SD)	t
모의존성	없음(n=352)	3.01(.52)	1.14
	있음 (n=73)	2.94(.48)	
모유용성	없음(n=356)	3.35(.52)	0.83
	있음 (n=73)	3.29(.48)	
모애착	없음(n=352)	3.18(.47)	1.08
	있음 (n=73)	3.11(.45)	
부의존성	없음(n=355)	2.98(.58)	0.18
	있음 (n=73)	2.96(.49)	
부유용성	없음(n=349)	3.28(.57)	-0.17
	있음 (n=73)	3.29(.50)	
부애착	없음(n=348)	3.13(.54)	0.08
	있음 (n=73)	3.13(.45)	

표4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의존성, 모유용성, 모애착, 부의존성, 부애착에서 타인양육의 경험이 있는 아동의 애착 평균점수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애착 평균점수보다 약간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타인양육의 특성과 아동의 애착

타인양육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5와 같다. 타인양육을 1번 경험한 사례수는 54사례, 2번 경험한 사례수는 15사례, 3번 경험한 사례수는 4사례로 총 73사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타인양육의 특성들이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5에 제시된 타인양육 특성에 관한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t-test와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타인양육 특성의 어느 것도 아동의 애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타인양육의 특성

변인		특성	빈도(%)
첫 번째 타인양육 (n=73)	시작 시기	0~6개월	43(58.8%)
		7~12개월	6(8.3%)
		13~36개월	18(24.7%)
		37개월 이후	6(8.3%)
	기간	3~12개월	21(28.8%)
		13~24개월	13(17.9%)
		25~36개월	21(28.8%)
		37개월 이상	18(24.8%)
	빈도	매일 하루종일(3개월이상)	40(54.8%)
		일주일에 5~6일	29(39.7%)
		일주일에 2~3일	4(5.5%)

	안정성	규칙	71(97.3%)
		불규칙	2(2.7%)
	타인양육자	조부모	41(56.2%)
친척		13(17.8%)	
어린이집 강사		11(15.1%)	
기타(예. 이웃)		8(11.0%)	
이유	어머니의 직장문제	69(94.5%)	
	기타	4(5.4%)	
두 번째 타인양육 (n=19)	시작 시기	4~11개월	2(10.6%)
		13~36개월	8(42.2%)
		37개월 이후	9(47.7%)
	기간	2~9개월	4(21.2%)
		13~23개월	5(56.5%)
		27~36개월	4(21.2%)
		40개월 이상	6(31.8%)
	빈도	매일 하루종일(3개월이상)	1(5.3%)
		일주일에 5~6일	17(89.5%)
		일주일에 2~3일	1(5.3%)
	안정성	규칙	19(100%)
불규칙		0	
타인양육자	조부모	1(5.3%)	
	친척	3(15.8%)	
	어린이집 강사	13(68.4%)	
	기타	2(10.5%)	
이유	어머니의 직장문제	19(100%)	
세 번째 타인양육 (n=4)	시작 시기	6개월, 18개월, 36개월, 60개월	4(100%)
	기간	7개월	1(25%)
		12개월	2(50%)
		30개월	1(25%)
	빈도	매일 하루종일(3개월이상)	3(75%)
		일주일에 5~6일	1(25%)
	안정성	규칙	4(100%)
불규칙		0	
타인양육자	조부모	3(75%)	
	어린이집 강사	1(25%)	
이유	어머니의 직장문제	4(100%)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

1) 부모 양육효능감의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의 아동 애착 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 전체 점수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그룹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아동의 애착 특성을 알아보고자 요인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6에 제시하였다.

표 6 부모의 양육효능감 상위하위그룹에 따른 아동의 애착 차이

	양육효능감		t
	하위(M/SD)	상위(M/SD)	
모의존성	2.87(.48)	3.16(.50)	-4.58***
모유용성	3.23(.54)	3.47(.49)	-3.55***
모애착 총점	3.05(.48)	3.32(.44)	-4.35***
부의존성	2.84(.54)	3.12(.53)	-4.08***
부유용성	3.14(.57)	3.44(.50)	-4.31***
부애착 총점	2.99(.52)	3.28(.48)	-4.42***

*** p < .001.

표6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효능감이 낮은 하위 그룹 부모의 아동들보다 부모양육효능감이 높은 상위 그룹 아동들의 애착 수준이 모의존성, 모유용성, 모애착, 부의존성, 부유용성, 부애착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변인들 간의 Pearson's 적률 상관관계 계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7에 제시하였다.

표 7 아동의 애착과 부모의 양육효능감간의 관계

	모애착	부애착	모양육효능감	부양육효능감
모애착				
부애착	.70***			
모양육효능감	.21***	.12*		
부양육효능감	.16**	.23***	.42***	

* $p < .05$. ** $p < .01$. *** $p < .0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모애착, 부애착과 모양육효능감, 부양육효능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모애착과 부애착 사이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r=.70$)를 보여주어 아동의 모애착과 부애착은 서로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모양육효능감과 모애착의 하위요인별 상관

	모애착		모양육효능감			
	모의존성	모유용성	전반	건강	의사소통	학습
모 애착	모의존성					
	모유용성	.67***				
모 양육 효능감	전반	.15**	.15**			
	건강	.18***	.20***	.76***		
	의사소통	.20***	.18***	.76***	.69***	
	학습	.17***	.18***	.72***	.64***	.61***
	훈육	.17***	.16***	.62***	.58***	.68***

** p < .01. *** p < .001.

표 9 부양육효능감과 부애착의 하위요인별 상관

	부애착		부양육효능감			
	부의존성	부유용성	전반	건강	의사소통	학습
부 애착	부의존성					
	부유용성	.72***				
부 양육 효능감	전반	.19***	.20***			
	건강	.18***	.21***	.77***		
	의사소통	.24***	.25***	.81***	.80***	
	학습	.18***	.19***	.78***	.66***	.76***
	훈육	.10*	.15**	.73***	.76***	.76***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애착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어머니와 아버지로 나누어 각각 알아보았다. 표8에 제시되었듯이, 모의존성 및 모유용성은 각각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과 높지는 않으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표9에 제시된 부의존성 및 부유용성은 각각 아버지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과 높지는 않으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효능감의 특성

아동의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육효능감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을 주요 독립 변수로 하여 아동전체, 남아, 여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시 유의수준을 $\leq .50$ 으로 한 결과, 표10과 같이 아동의 성별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어머니의 양육효능감)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의 전체 변량은 각각 4.1%(아동전체), 5%(남아), 5%(여아)를 설명하였고,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5$)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관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표 10 아동의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육효능감의 특성

	변인	B	β	t	R^2	F
전체 아동 (n=402)	(상수)	2.36		12.00	.041	17.21***
	의사소통능력	.20	.20	4.15***		
	전반적양육효능감		.00	.05		
	건강	진입- β	.10	1.46		
	학습지도능력		.09	1.41		
	훈육능력		.07	1.04		
남 (n=177)	(상수)	2.22		7.85	.050	9.13**
	의사소통능력	.21	.22	3.02**		
	전반적양육효능감		-.01	-.12		
	건강	진입- β	.05	.49		
	학습지도능력		.14	1.49		
	훈육능력		.10	.96		
여 (n=225)	(상수)	2.35		8.98	.050	11.85***
	의사소통능력	.23	.22	3.44***		
	전반적양육효능감		.00	.02		
	건강	진입- β	.12	1.25		
	학습지도능력		.07	.81		
	훈육능력		.01	.06		

** p < .01. *** p < .001.

표 11 아동의 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육효능감의 특성

	변인	B	β	t	R^2	F
전체 아동 (n=403)	(상수)	2.32		12.89	.077	16.61***
	의사소통능력	.36	.38	5.14***		
	훈육능력	-.14	-.16	-2.22*		
	전반적양육효능감		.07	.82		
	건강	진입- β	.11	1.22		
	학습지도능력		.08	1.04		
여 (n=227)	(상수)	1.75		6.67	.123	31.69***
	의사소통능력	.38	.35	5.63***		
	전반적양육효능감		.01	.11		
	건강	진입- β	.16	1.59		
	학습지도능력		.08	.84		
	훈육능력		-.15	-1.63		

* $p < .05$. *** $p < .001$.

마찬가지로 아동의 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육효능감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을 주요 독립 변수로 하여 아동전체, 남아, 여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시 유의수준을 $\leq .50$ 으로 한 결과를 표11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양육효능감의 의사소통능력과

훈육능력을 제외한 그 밖의 변수들은 모형에서 제거되었다. 이 모형의 전체 변량은 7.7%($R^2=.077$)를 설명하였고,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의사소통능력($\beta=.38***$), 훈육능력($\beta=-.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훈육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전체 아동의 애착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로 남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시에는 부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 변수들이 모형에서 제거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양육효능감의 의사소통능력을 제외한 그 밖의 변수들은 모형에서 제거되었다. 이 모형의 전체 변량은 12.3%($R^2=.123$)를 설명하였고,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표준화 계수 β 는 .35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p<.001$) 것이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여아의 애착 수준이 높아진게 된다.

3.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들

1)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의 모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별, 아동의 나이, 아동의 출생순위, 가족수, 가족형태(2세대, 3세대이상), 모연령, 모학력, 모의 직업 유무, 가정의 한달

수입을 주요 독립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 유의수준을 $\leq .50$ 으로 한 결과, 표 12와 같이 아동의 성별을 제외한 그 밖의 변수들은 모형에서 제거되었다. 이 모형의 전체 변량은 5% ($R^2=0.05$)를 설명하였고,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p < .001$) 것으로 아동의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 ($\beta=.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일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표 12 아동의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B	β	t
(상수)	2.86		38.77
성별	.20	.22***	4.47
R 제곱		.05	
F		19.96***	

*** $p < .001$.

2) 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의 부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별, 아동의 나이, 아동의 학년, 아동의 출생순위, 가족수, 가족형태(2세대, 3세대이상), 부연령, 부학력, 가정의 한달 수입을 주요 독립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 유의수준을 $\leq .50$ 으로 한 결과, 표 13과 같이 아동의 성별, 아동의 학년, 가정의 한달수입을 제외한 그 밖의 변수들은 모형에서 제거되었다. 이 모형의 전체 변량은 6% ($R^2=0.06$)

를 설명하였고,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beta = .16$), 가정의 한달수입($\beta = .13$), 학년($\beta =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일수록, 가정의 한달수입이 많을수록, 아동의 학년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애착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표 13 아동의 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B	β	t
(상수)	3.28		10.04***
성별	.16	.16	3.20**
가정의 한달수입	.07	.13	2.72**
학년	-.12	-.11	-2.29*
R 제곱		.06	
F		7.98***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생후 초기의 부모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된 경험이 있는 아동의 애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인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이 아동이 지각하는 애착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에도 목적을 두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게 된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 429명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었다. 설문지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애착 설문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스스로 평가하는 양육효능감 설문지, 타인 양육의 경험과 특성에 대한 질문지를 포함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과 아동의 애착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의 유무와 타인양육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 및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김선주, 2002;

허윤진, 2002)에서 보여주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생의 초기 타인양육 되는 영아의 애착은 타인양육의 특성뿐 아니라 영아 자신의 특성, 어머니 및 가정의 특성, 타인양육자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재된다(Belsky, 1988;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 양연숙, 2000; 양연숙 & 조복희, 2001)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처 탐색하지 못한 아동 및 어머니의 특성과 타인양육자의 특성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마도 이미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타인양육 경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현재의 아동의 애착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 모애착과 부애착의 문항별로 알아본 애착의 특성(부록 참고)에서, (스트레스 시에 애착인물의 유용성을 나타내는)모유용성에 속한 ‘나는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타인양육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타인양육을 경험했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어머니와의 시간을 덜 보낸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었던 경험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로 여겨진다.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

먼저, 부모의 양육효능감 전체 점수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그룹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차이검증을 한 결과 아동의 애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모양육효능감이 낮은 하위 그룹 부모의 아

동들보다 부모양육효능감이 높은 상위 그룹 아동들의 애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애착과 모양육효능감 사이 및 부애착과 부양육효능감 사이에는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에 모애착과 부애착을 알면 모양육효능감과 부양육효능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효능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동의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인 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신숙재, 정문자, 1998; 서소정, 2004; 이진숙, 한지현, 2004 등)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참여를 이끌고, 이러한 부모의 행동과 태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양육효능감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Coleman & Karraker, 1997)와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효능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다는 것과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훈육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의사소통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문항들이 의사소통능력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나는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 나는 아이에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

‘ 나는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 나는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 내가 이야기 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기울이게 할 수 있다.’

‘ 나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사소통이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는 인지적 신념은 자녀와의 유대관계 형성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좀더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들은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좀 더 협조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배우게 된다는 결과(Putallaz & Heflin, 1990; 김선주, 2001 재인용)과 연관이 있다.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훈육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은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훈육능력과 관련된 문항

들을 살펴보면,

‘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

‘ 나는 아이가 집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

‘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

‘ 나는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

문항들의 내용이 자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한계설정과 같은 개입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할 수 있다는 인지적 관점은 아버지의 행동과 태도에서 일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아버지와의 유대관계를 부정적이게 지각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들

아동의 애착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아동의 성별, 아동의 나이, 아동의 출생순위, 가족수, 가족형태(2세대, 3세대이상), 부모연령, 부모학력, 모의 직업 유무, 가정의 한달 수입)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대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아일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과 여아일수록, 가정의 한달수입이 많을수록, 아동의 학년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애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애착수준이 가정의 한달수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수입이 많을수록 아버지가 가정과 자녀에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할 것이기 때문으로, 아동의 학년과 관련이 있는 것은 6학년이 되면 사회적 상황에서는 학업

이 더욱 중시되어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기회 및 시간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보다 상세한 애착의 특성을 알기 위해 차이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의존성과 모유용성, 부의존성과 부유용성 모두 전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선주,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애착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별 차이검증을 한 결과, 모애착과 관련하여 두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두 문항은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한다.’(모의존성)와 ‘나는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모유용성)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덜 이해하고 어머니와 덜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가 직장생활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두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실제적인 모의존성과 모유용성, 그리고 모 애착에는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애착과의 관계와 타인양육의 경험 자체가 아동의 애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부모가 부모

자신을 스스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관점에서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이 지각하는 애착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아보려는 시도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애착의 전생애적 관점에서 보면 초기의 양육경험은 전생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양육에 대한 연구가 영유아기 뿐 아니라 아동기나 성인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된 아동들의 애착이 아동기에 어떠했는가에 대한 검증은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타인양육의 경험에 대한 설문으로 상황을 회고하여 응답하는 질문이었기에 객관적인 질문의 한계로 인하여 상세하게 예측하기 힘들었다. 즉, 타인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는 타인양육의 형태, 시기, 기간, 빈도, 타인양육자의 종류, 타인양육의 질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회상을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타인양육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모님들 역시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타인양육의 특성에 대한 분류가 유의미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표집의 어려움으로 타인양육 경험이 있는 사례의 수가 적었던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어진 아동들의 애착과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어진 아동들의 애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것은 타인양육의 경험이 과거의 상황이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이 있었기에 아동의 애착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더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기회나 시간이 줄어들어 양육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는 즐거움보다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양육을 부모로서의 확신감을 갖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경험으로 여긴다면 특별한 형태의 관계로서 자녀와의 애착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즉,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지적 신념이라 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주(2001). 부모와의 분리 경험과 애착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 우울, 외로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주, 권정혜(2004). 6세 이전 부모와의 분리경험이 아동의 친구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37-655.
-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박경자(1992). 영·유아기 타인양육이 학령전 어린이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2), 217-228.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소정(2004). 양육 효능감: 자녀 양육행동 매개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송지연(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애착 및 물체영속성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 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연숙, 조복희(200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유연숙, 최해림(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 대리양육자의 양육태도, 애착 및 정서부적응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시은, 이재창(2004).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6(2), 207-226.

이진숙, 한지현(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전우경(2002).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최형성(2005). 양육효능감의 매개 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아동학회지, 26(6), 351-365.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3.

한지현, 이영환(2003).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해동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119-149.

허윤진(2002). 어머니와의 분리경험과 타인 양육의 특성이 모-자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elsky, J.(1988). The effect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Bowlby, J(1958). The nature of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1-23.

Christine Reiner Hess, Douglas M. Teti, Brenda Hussey-Gardner(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of high-risk infants: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5, 423-437.

Coleman, P.K. & Karraker, K.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Melissa Lieberman, Anna-Beth Doyle, and Dorothy Markiewicz(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1), 202-213.

Michael E. Lamb, Kathleen J. Sternberg, and Margarita Prodromidis(1992). Nonmaternal Care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Reanalysis of the Data.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5, 71-83.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1). Nonmaternal care and family factors in early development: An overview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57-492.

ABSTRACT

The Effects of Children's Nonmaternal Care Experience and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mother/father Attachment

Yoon, Mi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nonmaternal care experience(NCE), mother's/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mother/father attachment.

Participants were 429 children in the 5th and 6th grade in seven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parents. They included 73 children who reported NCE(children's nonmaternal care experience). Children reported the levels of perceived attachment to each parent. Their mothers and fathers reported the levels of parenting self-efficacy.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mother/father attachment between NCE(children's nonmaternal care experience) and MC(children's maternal care experience) groups.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mother/father attach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Finally, it was indicated that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That is girls significantly formed more stable attachment to their parents than boys did. And the children who have a working mother formed less stable availability of child-mother attachment than those who did not.

As a result, the higher the mother/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the more stable the child's attachment to his mother and father.

부 록

- 부록 1.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문항별 아동의 모애착 차이
- 부록 2. 모양육효능감 상위하위그룹에 따른 모애착의 문항별 차이
- 부록 3. 부양육효능감 상위하위그룹에 따른 부애착의 문항별 차이
- 부록 4. 아동의 성별에 따른 모애착 특성
- 부록 5.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애착 특성
- 부록 6.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모애착 특성
- 부록 7. 아동용 설문지
- 부록 8. 어머니용 설문지
- 부록 9. 아버지용 설문지

부록 1.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문항별 아동의 모애착 차이

	경험	모애착		
		n	평균(SD)	t
1. 나는 엄마를 쉽게 믿는다.	유	73	3.12(.71)	.61
	무	355	3.18(.69)	
2.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허락하신다고 느낀다.	유	73	2.86(.82)	1.17
	무	356	2.98(.80)	
3. 나는 엄마에게 쉽게 의지한다.	유	73	2.60(.76)	1.64
	무	355	2.77(.82)	
4. 내 생각과 느낌을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유	73	2.81(.83)	.64
	무	356	2.88(.88)	
5. 나는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한다.	유	73	2.97(.88)	.59
	무	355	3.04(.84)	
6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한다.	유	73	2.99(.86)	1.78
	무	356	3.17(.81)	
7. 나는 엄마가 나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한다.	유	73	3.08(.88)	.69
	무	356	3.16(.84)	
8. 나는 당황했을 때 엄마에게로 간다.	유	73	2.64(.96)	-.01
	무	356	2.64(.88)	
9 나는 엄마가 가까이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유	73	3.29(.61)	-.61
	무	355	3.34(.73)	
모의존성	유	73	2.94(.48)	1.15
	무	352	3.01(.52)	
10 나는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유	73	2.73(.90)	2.07*
	무	356	2.96(.87)	
11. 나는 엄마와 너무나 친밀해서 행복하다.	유	73	3.23(.73)	.06
	무	356	3.24(.77)	
12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유	73	3.48(.75)	.76
	무	356	3.55(.61)	
13 나는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유	73	3.59(.60)	-.09
	무	356	3.58(.67)	
14 나는 엄마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거라고 믿는다.	유	73	3.34(.71)	.28
	무	356	3.37(.71)	
15 나는 엄마가 나를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유	73	3.37(.74)	.04
	무	356	3.37(.68)	
모유용성	유	73	3.29(.48)	.83
	무	356	3.35(.52)	
모애착 총점	유	73	3.11(.45)	1.08
	무	352	3.18(.47)	

* $p < .05$.

부록 2. 모양육효능감 상위하위그룹에 따른 모애착의 문항별 차이

		모애착		t
		하위(M/SD)	상위(M/SD)	
모 의 존 성	1. 나는 엄마를 쉽게 믿는다.	2.98(.65)	3.32(.72)	-3.73***
	2.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허락하신다고 느낀다.	2.75(.81)	3.20(.66)	-4.68***
	3. 나는 엄마에게 쉽게 의지한다.	2.71(.77)	2.82(.88)	-.99
	4. 내 생각과 느낌을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2.64(.80)	3.10(.86)	-4.31***
	5. 나는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한다.	3.05(.82)	3.04(.90)	.07
	6.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한다.	2.98(.83)	3.30(.71)	-3.13**
	7. 나는 엄마가 나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한다.	2.96(.85)	3.38(.78)	-4.03***
	8. 나는 당황했을 때 엄마에게로 간다.	2.54(.85)	2.81(.96)	-2.32*
	9. 나는 엄마가 가까이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3.18(.72)	3.48(.61)	-3.47**
모 유 용 성	10. 나는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2.79(.90)	3.07(.90)	-2.38*
	11. 나는 엄마와 너무나 친밀해서 행복하다.	3.11(.80)	3.38(.66)	-2.89**
	12.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3.41(.69)	3.68(.54)	-3.37***
	13. 나는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3.48(.69)	3.64(.64)	-1.88
	14. 나는 엄마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거라고 믿는다.	3.29(.69)	3.50(.68)	-2.36*
	15. 나는 엄마가 나를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3.32(.71)	3.56(.61)	-2.74**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3. 부양육효능감 상위하위그룹에 따른 부애착 문항별 차이

		부애착		t
		하위(평균/SD)	상위(평균/SD)	
부 의 존 성	1. 나는 아빠를 쉽게 믿는다.	3.04(.77)	3.29(.76)	-2.48*
	2.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빠가 허락하신다고 느낀다.	2.85(.86)	3.13(.79)	-2.59**
	3. 나는 아빠에게 쉽게 의지한다.	2.72(.80)	2.94(.87)	-2.07*
	4. 내 생각과 느낌을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2.52(.86)	2.74(.89)	-1.94
	5. 나는 아빠를 많이 필요로 한다.	2.83(.81)	3.08(.85)	-2.33*
	6. 나는 아빠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한다.	3.10(.79)	3.44(.71)	-3.49**
	7. 나는 아빠가 나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한다.	3.03(.81)	3.48(.62)	-4.87***
	8. 나는 당황했을 때 아빠에게로 간다.	2.34(.86)	2.66(.89)	-2.83**
	9. 나는 아빠가 가까이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3.10(.77)	3.36(.65)	-2.77**
부 유 용 성	10. 나는 아빠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2.53(.95)	2.86(1.01)	-2.63**
	11. 나는 아빠와 너무나 친밀해서 행복하다.	2.97(.82)	3.32(.76)	-3.45***
	12. 나는 아빠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3.43(.64)	3.67(.56)	-3.14**
	13. 나는 아빠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3.45(.74)	3.72(.52)	-3.22***
	14. 나는 아빠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거라고 믿는다.	3.25(.75)	3.57(.62)	-3.57***
	15. 나는 아빠가 나를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3.19(.72)	3.53(.61)	-3.84***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4. 아동의 성별에 따른 모애착 특성

	성별		t
	남(M/SD)	여(M/SD)	
1. 나는 엄마를 쉽게 믿는다.	3.08(.68)	3.24(.70)	-2.35*
2.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허락하신다고 느낀다.	2.85(.83)	3.05(.77)	-2.68**
3. 나는 엄마에게 쉽게 의지한다.	2.66(.81)	2.81(.82)	-1.90
4. 내 생각과 느낌을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2.77(.86)	2.95(.87)	-2.12*
5. 나는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한다.	2.97(.85)	3.07(.84)	-1.14
6.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한다.	3.10(.80)	3.18(.84)	-1.05
7. 나는 엄마가 나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한다.	3.04(.87)	3.23(.82)	-2.34*
8. 나는 당황했을 때 엄마에게로 간다.	2.40(.84)	2.84(.89)	-5.20***
9. 나는 엄마가 가까이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3.13(.72)	3.43(.67)	-4.52***
모의존성	2.89(.48)	3.09(.53)	-4.04***
10. 나는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2.84(.81)	2.98(.92)	-1.73
11. 나는 엄마와 너무나 친밀해서 행복하다.	3.09(.71)	3.35(.75)	-3.76***
12.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3.46(.61)	3.60(.64)	-2.43*
13. 나는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3.52(.65)	3.63(.66)	-1.65
14. 나는 엄마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거라고 믿는다.	3.22(.72)	3.48(.67)	-3.74***
15. 나는 엄마가 나를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3.29(.68)	3.44(.69)	-2.34*
모유용성	3.24(.45)	3.41(.55)	-3.70***
모애착 총점	3.06(.41)	3.25(.50)	-4.2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5.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애착 특성

	성별		t
	남(M/SD)	여(M/SD)	
1. 나는 아빠를 쉽게 믿는다.	3.06(.82)	3.22(.75)	-2.01*
2.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빠가 허락하신다고 느낀다.	2.86(.83)	3.14(.79)	-3.56***
3. 나는 아빠에게 쉽게 의지한다.	2.81(.77)	2.85(.86)	-0.49
4. 내 생각과 느낌을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2.60(.94)	2.70(.92)	-1.07
5. 나는 아빠를 많이 필요로 한다.	2.91(.82)	3.06(.86)	-1.86
6. 나는 아빠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한다.	3.21(.74)	3.28(.82)	-0.95
7. 나는 아빠가 나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한다.	3.19(.75)	3.22(.83)	-0.46
8. 나는 당황했을 때 아빠에게로 간다.	2.25(.83)	2.63(.88)	-4.52***
9. 나는 아빠가 가까이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3.07(.74)	3.31(.72)	-3.43***
부의존성	2.89(.51)	3.05(.61)	-2.95***
10. 나는 아빠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2.53(.92)	2.79(.04)	-2.72**
11. 나는 아빠와 너무나 친밀해서 행복하다.	3.04(.73)	3.21(.85)	-2.30*
12. 나는 아빠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3.44(.59)	3.61(.65)	-2.76**
13. 나는 아빠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3.55(.63)	3.62(.65)	-1.11
14. 나는 아빠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거라고 믿는다.	3.31(.69)	3.48(.74)	-2.33*
15. 나는 아빠가 나를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3.30(.66)	3.38(.72)	-1.14
부유용성	3.20(.46)	3.35(.61)	-2.95**
부애착 총점	3.04(.43)	3.20(.57)	-3.22***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6.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모애착 특성

	모직업		t
	유(M/SD)	무(M/SD)	
1. 나는 엄마를 쉽게 믿는다.	3.18(.63)	3.17(.73)	0.11
2.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허락하신다고 느낀다.	3.00(.75)	2.95(.83)	0.69
3. 나는 엄마에게 쉽게 의지한다.	2.75(.78)	2.75(.85)	-0.07
4. 내 생각과 느낌을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2.82(.82)	2.91(.90)	-1.01
5. 나는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한다.	3.03(.85)	3.02(.83)	0.11
6.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한다.	3.06(.81)	3.22(.82)	-2.08*
7. 나는 엄마가 나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한다.	3.12(.80)	3.17(.86)	-0.61
8. 나는 당황했을 때 엄마에게로 간다.	2.68(.88)	2.63(.90)	0.47
9. 나는 엄마가 가까이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3.30(.65)	3.30(.75)	-0.05
모의존성	2.99(.48)	3.01(.52)	-0.39
10. 나는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2.66(.87)	3.16(.80)	-6.06***
11. 나는 엄마와 너무나 친밀해서 행복하다.	3.19(.73)	3.29(.74)	-1.45
12.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3.49(.67)	3.59(.60)	-1.59
13. 나는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3.62(.55)	3.56(.72)	0.90
14. 나는 엄마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거라고 믿는다.	3.31(.71)	3.42(.68)	-1.61
15. 나는 엄마가 나를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3.32(.71)	3.43(.64)	-1.58
모유용성	3.27(.48)	3.41(.52)	-2.90**
모애착 총점	3.13(.45)	3.21(.47)	-1.74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용 설문지

★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생입니다.

다음 질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에게는 비밀이 지켜집니다.

각 문항에 미리 정해진 답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솔직하게 답하면 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이름 : _____ 초등학교

학년과 반, 번호 :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나이 : 만 _____ 세

성별 : 남 / 여

♣ 다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잘 읽고 ‘**아주 그렇다**’면 4번에, ‘**조금 그렇다**’면 3번에, ‘**그렇지 않다**’면 2번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번에 O표하면 됩니다. 빠짐없이 대답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엄마를 쉽게 믿는다.	1	2	3	4
2. 나는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허락하신다고 느낀다.	1	2	3	4
3. 나는 엄마에게 쉽게 의지한다.	1	2	3	4
4. 나는 내 생각과 느낌을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나는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한다.	1	2	3	4
6.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한다.	1	2	3	4
7. 나는 엄마가 나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나는 당황했을 때 엄마에게로 간다.	1	2	3	4
9. 나는 엄마가 가까이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1	2	3	4
10. 나는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1	2	3	4
11. 나는 엄마와 너무나 친밀해서 행복하다.	1	2	3	4
12. 나는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1	2	3	4
13. 나는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1	2	3	4
14. 나는 엄마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거라고 믿는다.	1	2	3	4
15. 나는 엄마가 나를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 다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잘 읽고 ‘아주 그렇다’면 4번에, ‘조금 그렇다’면 3번에, ‘그렇지 않다’면 2번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번에 O표하면 됩니다. 빠짐없이 대답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아빠를 쉽게 믿는다.	1	2	3	4
2. 나는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빠가 허락하신다고 느낀다.	1	2	3	4
3. 나는 아빠에게 쉽게 의지한다.	1	2	3	4
4. 나는 내 생각과 느낌을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나는 아빠를 많이 필요로 한다.	1	2	3	4
6. 나는 아빠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한다.	1	2	3	4
7. 나는 아빠가 나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나는 당황했을 때 아빠에게로 간다.	1	2	3	4
9. 나는 아빠가 가까이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1	2	3	4
10. 나는 아빠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1	2	3	4
11. 나는 아빠와 너무나 친밀해서 행복하다.	1	2	3	4
12. 나는 아빠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1	2	3	4
13. 나는 아빠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1	2	3	4
14. 나는 아빠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거라고 믿는다.	1	2	3	4
15. 나는 아빠가 나를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어머니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발달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질문지는 아동의 양육경험과 부모님께서 평소 부모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평소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그 결과는 양육에 대한 이해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동의 학교 이름 : _____ 초등학교

아동의 학년과 반, 번호 :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아동의 나이 : 만 _____ 세

아동의 성별 : 남 / 여

아동의 출생순위 : _____ 남 _____ 여 중 _____ 째

♣ 다음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나이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만으로 계산한 나이를 표시해 주십시오.

* “**주양육자**”는 **아동이 깨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8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아준 사람입니다.**

1. 아동이 6세 이전에 어머니와 분리되어 양육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5번 문항으로 건너뛰세요.

② 있다 -----> 주양육자가 바뀐 횟수만큼 아래 표에 응답해주세요.

<보기>

예) 어떤 어머니가 0개월에서 3개월까지 아동을 양육하다가 직장문제로 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외갓집에서 외할머니가 양육을 담당하였고, 만 3세(37개월)에 아동을 집으로 데려와서 만 4세(59개월)까지 주일에 3일은 이모네 맞기고 3일은 어머니가 양육하다가, 5세(60개월)부터 6세(72개월)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린이 집에 보냈었다면.

2. 첫 번째 타인양육 경험	3. 두 번째 타인양육 경험	4. 세 번째 타인양육 경험
i. 아동이(4)개월~(36)개월까지, 일주일에(7)일(32개월)동안 돌봄. ii. 주양육자는 (외할머니), 양육장소는 (외갓집)에서 iii. 하루중 어머니와 같이 지낸 시간은? (한달에 이틀)시간, 일주일에 ()일 (외갓집)에서 iv. 하루중 아동이 주양육자와 함께한 시간은? (8)~(21)시까지, (하루종일)시간 v.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빈도는 일주일을 단위로 몇 번이었나?(1) ①매일 하루 종일(3개월이상) ②일주일에 6일 일정시간동안 ③일주일에 2-3번 ④한 달에 2-3번 vi.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떠했는가? (1) ①규칙적으로 일정했다. ②불규칙적으로 바뀌었다. vii. 아동이 타인에게 양육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①어머니의 직장문제 ②어머니의 질병문제 ③어머니의 사망문제 ④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⑤경제적 이유로 ⑥기타(구체적으로:)	i. 아동이(37)개월~(59)개월까지, 일주일에(3)일(22개월)동안 돌봄. ii. 주양육자는 (이모), 양육장소는 (이모네집)에서 iii. 하루중 어머니와 같이 지낸 시간은? (24)시간, 일주일에(3)일 (집)에서 iv. 하루중 아동이 주양육자와 함께한 시간은? (8)~(21)시까지, (하루종일)시간 v.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빈도는 일주일을 단위로 몇 번이었나?(3) ①매일 하루 종일(3개월이상) ②일주일에 6일 일정시간동안 ③일주일에 2-3번 ④한 달에 2-3번 vi.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떠했는가? (1) ①규칙적으로 일정했다. ②불규칙적으로 바뀌었다. vii. 아동이 타인에게 양육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 ①어머니의 직장문제 ②어머니의 질병문제 ③어머니의 사망문제 ④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⑤경제적 이유로 ⑥기타(구체적으로:)	i. 아동이(60)개월~(72)개월까지, 일주일에(6)일(12개월)동안 돌봄. ii. 주양육자 (어린이집), 양육장소는 (어린이집)에서 iii. 하루중 어머니와 같이 지낸 시간은? (5)시간, 일주일에 (7)일 (집)에서 iv. 하루중 아동이 주양육자와 함께한 시간은? (10)~(18)시까지, (8)시간 v.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빈도는 일주일을 단위로 몇 번이었나?(2) ①매일 하루 종일(3개월이상) ②일주일에 6일 일정시간동안 ③일주일에 2-3번 ④한 달에 2-3번 vi.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떠했는가? (1) ①규칙적으로 일정했다. ②불규칙적으로 바뀌었다. vii. 아동이 타인에게 양육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 ①어머니의 직장문제 ②어머니의 질병문제 ③어머니의 사망문제 ④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⑤경제적 이유로 ⑥기타(구체적으로:)

2. 첫 번째 타인양육 경험	3. 두 번째 타인양육 경험	4. 세 번째 타인양육 경험
<p>i. 아동이 ()개월부터 ()개월까지, 일주일에 ()일 ()동안 돌봄.</p> <p>ii. 주양육자는 (), 양육장소는 ()에서</p> <p>iii. 하루 중 어머니와 같이 지낸 시간은? ()시간, 일주일에 ()일()에서</p> <p>iv. 하루 중 아동이 주양육자와 함께한 시간은? ()시부터 ()시까지,()시간</p> <p>v.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빈도는 일주일을 단위로 몇 번이었나?()</p> <p>①매일 하루 중일(3개월이상) ②일주일에 6일 일정시간동안 ③일주일에 2-3번 ④한 달에 2-3번 ⑤ 기타(구체적으로:)</p> <p>vi.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떠했는가? ()</p> <p>①규칙적으로 일정했다. ②불규칙적으로 바뀌었다.</p> <p>vii. 아동이 타인에게 양육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p> <p>①어머니의 직장문제 ②어머니의 질병문제 ③어머니의 사망문제 ④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⑤경제적 이유로 ⑥기타(구체적으로:)</p>	<p>i. 아동이 ()개월부터 ()개월까지, 일주일에 ()일 ()동안 돌봄.</p> <p>ii. 주양육자는 (), 양육장소는 ()에서</p> <p>iii. 하루 중 어머니와 같이 지낸 시간은? ()시간, 일주일에 ()일()에서</p> <p>iv. 하루 중 아동이 주양육자와 함께한 시간은? ()시부터 ()시까지,()시간</p> <p>v.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빈도는 일주일을 단위로 몇 번이었나?()</p> <p>①매일 하루 중일(3개월이상) ②일주일에 6일 일정시간동안 ③일주일에 2-3번 ④한 달에 2-3번 ⑤ 기타(구체적으로:)</p> <p>vi.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떠했는가? ()</p> <p>①규칙적으로 일정했다. ②불규칙적으로 바뀌었다.</p> <p>vii. 아동이 타인에게 양육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p> <p>①어머니의 직장문제 ②어머니의 질병문제 ③어머니의 사망문제 ④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⑤경제적 이유로 ⑥기타(구체적으로:)</p>	<p>i. 아동이 ()개월부터 ()개월까지, 일주일에 ()일 ()동안 돌봄.</p> <p>ii. 주양육자는 (), 양육장소는 ()에서</p> <p>iii. 하루 중 어머니와 같이 지낸 시간은? ()시간, 일주일에 ()일 ()에서</p> <p>iv. 하루 중 아동이 주양육자와 함께한 시간은? ()시부터 ()시까지,()시간</p> <p>v.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빈도는 일주일을 단위로 몇 번이었나?()</p> <p>①매일 하루 중일(3개월이상) ②일주일에 6일 일정시간동안 ③일주일에 2-3번 ④한 달에 2-3번 ⑤ 기타(구체적으로:)</p> <p>vi. 아동이 타인양육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떠했는가? ()</p> <p>①규칙적으로 일정했다. ②불규칙적으로 바뀌었다.</p> <p>vii. 아동이 타인에게 양육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p> <p>①어머니의 직장문제 ②어머니의 질병문제 ③어머니의 사망문제 ④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⑤경제적 이유로 ⑥기타(구체적으로:)</p>

5. 아동과 다른 형제와의 나이 차이는? ()

- ① 1년 미만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기타 (년)

6. 아동과 함께 사는 가족을 모두 골라 O표 해주세요. (총 _____명)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양아버지 ④ 양어머니 ⑤ 형(오빠)
⑥ 누나(언니) ⑦ 남동생 ⑧ 여동생 ⑨ 친(외)할아버지 ⑩ 친(외)할머니
⑪ 기타 ()

7. 아버지의 연령은? ()세

8. 어머니의 연령은? ()세

9. 아버지의 교육 정도는? ()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전문대포함) ⑤ 대학원이상

10.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전문대포함) ⑤ 대학원이상

11. 아동의 부모님의 직업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세요. → 아버지(), 어머니()

- ① 전문직
② 관리직
③ 사무직
④ 기술직
⑤ 교사
⑥ 자영업
⑦ 무직
⑧ 주부
⑨ 기타(적어주세요: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12. 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부부의 소득, 저축포함)은 얼마입니까? ()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399만원
④ 400~499만원 ⑤ 500만원 이상

13. 아동의 부모님의 생존여부는? ()

- ① 아버지만 계심 ② 어머니만 계심 ③ 부모 모두 살아 계심 ④ 부모 모두 돌아가심
(만일 돌아가셨다면 아동이 몇 살 때였나요? 아버지; 만_____세, 어머니; 만_____세)

14. 만약 아동의 부모님이 이혼(별거)상태라면 부모님의 이혼(별거)은 언제부터입니까? ()

- ① 아동이 만_____세부터 (이혼 / 별거)
② 해당사항 없음

15. 다음 질문들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O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2. 나는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3.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4.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6. 나는 아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7. 나는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8. 나는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10.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11. 나는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12.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13.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썹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4.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5. 나는 아이가 방과후 좋은 활동(음악, 운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6. 나는 아이에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17. 나는 아이의 성적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18. 나는 아이가 집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20. 나는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21.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					
22. 나는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23. 나는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24.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25. 나는 아이에게 운동경기의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					
26. 나는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27.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28.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29. 나는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30. 나는 아이가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지도한다.					
31. 내가 이야기 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기울이게 할 수 있다.					
32.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다.					
33. 나는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34.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35. 나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6. 나는 아이의 방과 후 일과를 관리할 수 있다.					
37. 나는 아이를 일관성있게 훈육할 수 있다.					

아버지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발달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질문지는 아동의 양육경험과 부모님께서 평소 부모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평소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그 결과는 양육에 대한 이해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동의 학교 이름 : _____ 초등학교

아동의 학년과 반, 번호 : _____학년 _____반 _____번

아동의 나이 : 만 _____세

아동의 성별 : 남 / 여

아동의 출생순위 : _____남 _____여 중 _____째

♣ 다음 질문들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O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2. 나는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3.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4.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6. 나는 아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7. 나는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8. 나는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10.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11. 나는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12.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13.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4.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5. 나는 아이가 방과후 좋은 활동(음악, 운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6. 나는 아이에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17. 나는 아이의 성적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18. 나는 아이가 집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20. 나는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21.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					
22. 나는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23. 나는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24.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25. 나는 아이에게 운동경기의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					
26. 나는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27.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28.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29. 나는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30. 나는 아이가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지도한다.					
31. 내가 이야기 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기울이게 할 수 있다.					
32.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다.					
33. 나는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34.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35. 나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6. 나는 아이의 방과 후 일과를 관리할 수 있다.					
37. 나는 아이를 일관성있게 훈육할 수 있다.					

